

*Evodia daniellii Hemsl.*

# 쉬나무

소나무나 느티나무, 팽나무 등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종들을 인간식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서나 한 두 그루 씩 쉽게 볼 수 있는 쉬나무도 인간 식생종의 하나다. 우리 선조들이 집 가까이 혹은 궁궐이나 성곽 주변에 심어온 쉬나무는 나막신 재료나, 밤에 등불을 거는 등유 채취용으로, 꿀벌의 밀원식물로 식재되어온 유익한 수종이다. 이는 외부 형태나 생육 특성에 의해 쇠동백나무, 다지나무, 소동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린다.

- ▶ 과명 : 운향과
- ▶ 학명 : *Evodia daniellii Hemsl.*
- ▶ 한명 : 朝鮮吳茱萸
- ▶ 일명 : ちょうせんごしゅゆ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쉬나무는 해발 100~600m 사이에 분포하는 낙엽활엽 큰키나무로 키가 15m까지 자라고 추위에 강해 전국 어디서나 잘 자란다. 토심이 깊은 밭두둑이나 민가의 주택 주변에서 왕성하게 자라고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딘다. 특히 맹아력이 왕성하고 각종 공해에도 강해 도심지나 마을 주변 길가에 가로수로 심기에도 적당한 수종이다.

원줄기는 한줄기로 이뤄지고 가지는 원추형이나 원정형으로 밀생한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으로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어린가지는 적갈색이고 피목(나무줄기의 껍질에 작은 구멍)이 발달한다. 잎은 길이가 5~12cm인 계란형으로 소엽이 7~11개인 복엽이다, 잎 뒷면에 털이 있고 꽃은 8월경 우산 모양으로 핀다. 열매는 10월경 붉은 색 삭과(朔果)로 익어 타원형의 검은색을 띤 종자를 갖는다. 10월에 종자가 익을 무렵에는 붉은 꽃이 핀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다. 유사종으로는 중국이 원산이며 소엽이 7~16개이고 잎 뒷면에 털이 있는 오수유(*Evodia officinalis*)가 있는데 경북 경주에서 자라고 있다.

7~8월에 나무 전체를 뒤덮으며 피는 황백색의 꽃은 무더위 속의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한다. 특히 이 꽃은 꿀샘이 깊어 만개할 경우 꿀벌들이 무리를 이뤄 모여든다.



쉬나무의 수형은 우산과 같이 원만하고 둥글다. 나라마다 개성이 다르듯이 우리 선조들은 둥글고 원만한 수형을 지닌 쉬나무를 아끼고 사랑했다. 하지만 얼마 전 부터 쉬나무는 둥근 모양보다 뾰족하며 화사한 외래 관상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밀려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선조들이 아끼고 가꾸던 전통 관상수의 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에 따라 자생 수종들이 많이 심어지고 있고 양묘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선조들이 애호하던 쉬나무를 더 많이 심고 가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쉬나무는 종자나 삼목으로 번식하지만 종자번식이 효율적이다. 특히 열매가 많이 달리는 개체를 선택하여 접목번식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종자 번식은 일반적으로 10월 하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종자를 세척제인 풍풍이나 하이타이 50배액으로 풀어서 종자를 넣고 비벼서 마찰하면 종자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 수돗물로 세제를 제거한 다음 모래와 1:1 비율로 혼합해 매장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발아율이 75%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삼목은 3월 하순 즈음 전년에 자란 새 가지를 길이 10cm로 절단한 다음 삼목상에 꽂으면 된다.

쉬나무의 열매는 석유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유망해 관련학계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 열매에서 얻은 기름은 엔진을 가동 시킬 수 있는 양질의 연료로 판명되고 있는데,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다. 지난 70년대 에너지 파동 이후 세계 각국이 목본식물의 종실유로 디젤 및 석유 엔진의 대체 에너지 개발에 나섰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운향과에 속하는 쉬나무를 비롯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예덕나무, 주엽나무, 사랍나무 등에서 채취한 기름을 대체 에너지로 활용 할 수 있는 연구, 조사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유망한 쉬나무를 적극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쉬나무의 열매는 먹이 자원이 부족한 겨울 철 조류의 먹이가 되어 공원이나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4대강 유역에 식재하면 새들을 불러 모아 좀 더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목재는 단단하고 강해 가구재, 건축재로 쓰이며 늦여름에 피는 꽃으로 인해 밀원 식물로 가치가 크다. 🌳